

- 주요 뉴스: 미국 6월 고용보고서 발표 예정, 연준의 통화긴축 기조에 미칠 영향에 관심
 - ECB 파네타 위원, 마이너스 정책금리 탈피 이후 금리인상은 경제 지표를 반영할 필요
 - EU, 암호화폐 규제안 잠정 합의. 투자자 보호·자금세탁 방지 등을 강화할 방침
 - 중국 6월 차이신 제조업 PMI, 13개월 만에 최고치. 경제 봉쇄 완화 등에 기인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2.2%], 달러화 강세[+0.9%], 금리 하락[-25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소비부문 지표 부진 등이 투자심리 저해
 유로 Stoxx600 지수는 향후 경기불안 등으로 1.4%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이 반영
 유로화가치는 1.3% 하락, 엔화는 보합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5월 이후 최저 수준
 독일은 6월 소비자물가 둔화 등이 원인

※ 원/달러 환율(주간) 0.1% 하락, 한국 CDS 상승

		7/1일	6/24일	전주말대비			7/1일	6/24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3,825.3	3,911.7	-2.21%	국채 금리 10y	미국	2.88%	3.13%	-25bp
	유럽	407.13	412.93	-1.40%		독일	1.23%	1.44%	-21bp
	중국	3,387.6	3,349.7	1.13%	CDS 5y	한국	53bp	48bp	5bp
	일본	25,936	26,492	-2.10%		중국	84bp	77bp	7bp
	한국	2,305.4	2,366.6	-2.59%	위험 지표	EMBI+	458	432	26bp
환율	달러지수	105.14	104.19	0.91%		VIX	26.70	27.23	-1.95%
	유로화	1.0414	1.0553	-1.32%		WTI유	108.43	107.62	0.75%
	엔화	135.21	135.23	0.01%	원자재	구리	361.9	374.1	-3.25%
	위안화	6.7015	6.6898	-0.17%		금	1,811.4	1,826.9	-0.85%
	원화	1,297.3	1,298.2	0.07%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6월 고용보고서 발표 예정, 연준의 통화긴축 기조에 미칠 영향에 관심

- 노동부는 7/8일(금) 6월 고용보고서를 발표할 계획.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속적인 금리인상과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비농업부문 신규 취업자수는 전월(39만명) 대비 감소한 27~27.5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3.6%를 나타내고, 연간 임금상승률은 전월(5.2%)에 비해 다소 낮은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 다만 이로 인한 통화정책 영향과 관련하여 시장에서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
- 일부에서는 경기둔화에도 고용이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해석하여 7월 FOMC에서 0.75%p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7/7일(목) 공개되는 구인건수 역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
- 다른 한편에서는 연준이 그 동안 양호한 고용여건을 강조했는데, 신규 취업자수가 감소하면 초고강도 통화긴축 의지도 다소 누그러질 수 있다고 주장. 지난 주 6월 ISM 제조업 경기지수의 부진으로 금리인상 기대가 이미 약화되었다고 판단
- 한편 블룸버그의 Anna Wong은 경기 연착륙 현실화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이 연내에 급감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특히 최근 구인건수가 매우 많으며, 향후 레저 및 교육 등과 같은 서비스 부문에서의 수요 회복 전망 등으로 관련 부문에서의 고용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5월 건설지출, 전월 대비 감소.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등이 영향

- 해당 지출은 전월비 0.1% 줄어 4월(0.8%) 및 예상치(0.4%) 하회. 지속적인 정책금리 인상 영향으로 30년 모기지 금리가 6%까지 상승하면서 주택건설을 위한 대출이 둔화. 한편 유전 등이 포함된 민간 부문 비주거 건설 부문도 전월비 감소(-0.4%)

■ JP 모건, 미국은 경기침체에 위험할 정도로 근접. 성장을 전망치를 하향

- Michael Feroli 이코노미스트는 2/4분기와 3/4분기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서(각각 2.5%→1.0%, 2.0%→1.0%). 제시. 다만 기업의 해고가 낮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경제는 침체국면에 진입하지 않고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ECB 파네타 위원, 마이너스 정책금리 탈피 이후 금리인상은 경제 지표를 반영할 필요
 - 7월 0.25%p 금리인상 예고를 지지하지만, 인상 과정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디플레이션 여건에서 시행했던 통화정책을 중단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이상의 추가 조치는 인플레이션 및 성장 전망에 좌우되어야 한다고 강조
- EU, 암호화폐 규제안 잠정 합의. 투자자 보호·자금세탁 방지 등을 강화할 방침
 -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각국의 대표 등은 장기간의 논의 끝에 암호화폐시장 규제법안(MiCA)에 잠정 합의. 이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대량 인출 시 상황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준비금을 유지하도록 규정
 - 또한 시장안정이 필요한 경우 암호화폐 플랫폼 규제가 가능하며, 거래소는 거래 관련 손실 위험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 CNBC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라고 평가
- 중국 6월 차이신 제조업 PMI, 13개월 만에 최고치. 경제 봉쇄 완화 등에 기인
 - 해당 PMI는 51.7로 전월(48.1) 및 예상치(50.1)를 넘어섰으며, 아울러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확장의 기준인 50을 상회. 경제 봉쇄 완화와 당국의 경기부양책 등이 주요 원인. 세부항목 가운데 생산 등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
 - Caixin Insight Group의 Wang Zhe는 현재 제조업 활동은 긍정적이지만 고용부진에 따른 가계소득 둔화 등으로 기초 여건이 견고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
- Vitol Group, 글로벌 에너지 수요는 가격 급등으로 감소
 - Mike Muller 아시아사업 책임자는 에너지 가격 급등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 소비자들은 에너지 소비를 억누르고 있다고 지적. 다만 중국의 경우 경제 봉쇄 완화로 에너지 소비가 늘고 있다고 분석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7/1 현지시각 기준)
 - 유로존 6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확정치): 52.1, 5월(52.0), 예상치(52.0)
- 주요 경제 이벤트(7/4 현지시각 기준)
 - 미국 독립기념일(증시 휴장), 유로존 7월 섉틱스 투자신회 및 5월 생산자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중국의 경기둔화, 세계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킬 가능성 - WSI

(China's Slowdown Could Tamp Down Global Inflation)

- 다수의 전문가들은 '2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치(5.5%)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 주요국도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 이는 대내외 수요 위축과 이에 따른 중국 생산업체들의 제품 가격 인하를 유도하여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제한할 전망
- 또한 중국과 미국 서부를 연결하는 해상운송 요금이 하락하는 등 공급병목 완화 조짐도 관측. 한편 중국 당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가 원자재 수요 증가 및 물가상승 압력을 초래할 수 있으나, 종합적으로는 중국 제조업의 제품 가격 하락이 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

■ 신흥국 금융자산 가격, 미국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소지 - 블룸버그

(Bruised Emerging Markets Are Battle-Ready for a US Recession)

- 미국 경기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신흥국 금융자산 밸류에이션이 과거 혹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 하지만 이는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여러 위험 요인들을 이미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 또한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 및 경기부양책 추진이 원자재 수출국 등 신흥국의 경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 역시 금융자산 가격에 긍정적
- 이에 더해 블룸버그 설문조사는 '23년 신흥국 경제성장률이 선진국을 2배 또는 2.5%p 앞지를 것으로 전망. 이는 신흥국 통화가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

■ 미국의 경기침체, 과거대비 심하지 않으나 오래 지속될 우려 - 블룸버그

(Long, Moderate and Painful: What Next US Recession May Look Like)

■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 경기침체 임박 시 공격적인 통화긴축 자제가 요구 - Financial Times

(Central banks should keep their cool on inflation)

■ 미국 투자자, 엔화 강세 전환 및 유로존 채무위기 등의 위험도 대비할 필요 - WSI

(Markets Had a Terrible First Half of 2022. It Can Get Worse.)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